

평창국민여가캠핑장서 '데크' 빌리면 하나 더 무료

✎ 우정연 기자 | ☎ 승인 2024.09.06 08:01

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캠핑장으로 탈바꿈



국민여가캠핑장 데크 모습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[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] 강원 평창국민여가캠핑장서 데크를 예약하면 하나를 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
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평창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'1+1'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.

2캠핑장의 데크는 4m*4m로 다소 작은 크기로 조성돼 대형 텐트를 설치하기에 제한적이었다.

이에 추가로 제공되는 데크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객들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.

특히 1캠핑장 이용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 1캠핑장 이용객들은 2캠핑장의 빈 데크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.

1+1행사는 캠핑장이 폐장할 때까지 이어진다.



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캠핑장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이와 함께 평창국민여가캠핑장이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캠핑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.

반려동물을 위한 잔디운동장을 마련, 캠핑 중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.

또 반려동물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특별한 조명 장치도 설치했다.

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“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캠핑객에게 더 즐겁고 편리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이용객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우정연 기자 wooj2705@naver.com

저작권자 ©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